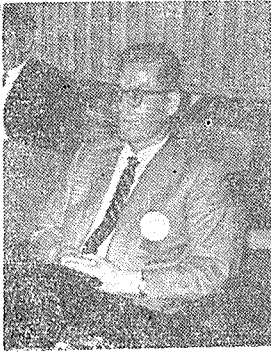


## 고 국 방 문 후 감

—한국의 도서관계를 돌아보고—



金 重 漢  
(美 인디아나 州立大學 教授)

십년 전 고국을 떠난 것이 었그제 일어난 일같은 착각을 잠시나마 하게 된 것은 김포공항에 접근할 때 벌거숭이 산천의 옛 모습 그대로를 기성에서 굽어 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일단 김포에 내려 서서부터는 변화의 템포를 느끼게 된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과연 서울은 십년 전에 보던 서울과는 너무도 달라져 있었다. 사람과 건물과 자동차로 질식할 것만 같은 거리는 대도시로 변모해 가는 서울의 고민을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았다.

고국에 돌아와 보고 제일 달라졌다고 느껴지는 것은 역시 사람들이다. 어느 외국 잡지에서인가 서울 인상을 쓴 기사에 오륙년 전만 하여도 서울 사람들의 표정에는 무엇인지 모르게 어둡고 맥빠진 그림자를 보았었는데 이제는 밝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달라져 가고 있었으며, 한눈질 안하고 앞만 곧장 보고 활보하는 사람들과 어찌다 몸이 마주 부딪히면 마치 돌벽에 부딪힌 것 같다고 한 것을 읽은 기억이 생각나서 사실 그런가 하여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기도 하였다. 물론 바쁘게 걷는 사람들과 맞부딪혀 보는 것은 되도록 피하였지만………….

지난 오월 하순에 필자가 잠시 귀국한 것은 아시아 지역 도서관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도서관계의 옛 친구들을 오랫동안 찾아 보고자한 것이 더욱 큰 목적이었다. 이번 국제회의를 통하여 옛친구, 동료, 선배들을 만나 본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었으며 좀더 오래 머물러 정과 생각을 나누어 보지 못한 것이 유감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일 반가웠던 것은 옛 친구들이 거의 전부 도서관계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일을 계속하여 왔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한국도서관계의 핵심적인 지도층을 이루고 자신만만하게 일을 꾸며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필자가 또 한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도서관협회가 많이 성장했다는 것이다. 한국도서관협회가 연령은 적지만 발전 속도와 활동이 아시아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빠르고 활발하다고 한 코벨대학 도서관장 케이서 박사의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되었다. 필자가 마음 든든하게 여기는 것은 도서관협회가 중심이 되어 분열하기 쉬운 도서관 지도인사들의 정력과 지혜와 노력을 한

방향으로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당연한 일 같으나 한국의 역사나 전통을 보면 짐작할 수 있듯이 한 방향으로 보조를 맞추어 간다는 것이 지극히 힘든 일이다. 물론 다소의 의견 차이라든지 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오는 마찰은 어느 단체에서나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의견의 차이나 마찰이 한 단체를 분열, 파피하지 않고 이끌어 가게 하는 힘은 그 단체의 성격이나 성숙도 또는 전통같은 것에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여러 가지 잡음과 마찰을 흡수하고 조절해 나갈 수 있을 만큼 자랐다고 보며, 앞으로 협회가 더 발전하여 이해관계가 커지고 또한 잡음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이미 청년기에 접어든 협회로서는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다.

이러한 성숙도를 증명한 것이 이번에 유사 이래 서울에서 처음으로 가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도서관 국제회의라 하겠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이제는 남의 지도와 원조에 의존하던 시기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일을 꾸며 나가고 남의 일까지 주의를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길만큼 자랐다는 것일 것이다.

도서관국제회의의 자체에 대하여 말하자면 필자가 당초 회의준비와 진행에 대하여 가졌던 염려는 일종의 쓸데 없는 기우였다. 필자한테는 멀리서 와서 일을 도와 주겠다고 생각한 것인데 실상 와서 보니 도와 주기는 커녕 오히려 손님 대접을 특특히 받고 보니 한편으로는 좀 화도 났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여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애를 많이 쓰신 협회장 및 준비위원들, 협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단단히 드리는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것은 회의 자체가 정말 성대하게 선진국에 비하여 손색없이 이루어졌다는 것보다도 그러한 회의를 가졌다는 정신과 거기서 얻은 경험과 자신이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번 회의가 예상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아샤임 박사가 필자에게 두어번 되풀이하여 한 말은 한국도서관계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앞섰고 인적으로나 조직상으로도 가장 잘 짜여져 있는 것 같다고 한 것이다. 그가 필자에게 외교적인 인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그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한국도서관협회를 미국의 그것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한국의 협회 발전에 참고가 될 몇 가지를 말하고 싶다. ALA의 사무국장 크리프트씨에 의하면 ALA 회원의 삼분의 일이 협회 사업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는 좀 과장된 말 같으나 정확한 비율을 알 수는 없으며 많은 회원이 참여하는 것은 사실이다. 협회의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많은 회원들의 직접 참여가 좋을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다. ALA의 현실에 대한 비판이 많다. 그중의 하나는 ALA의 기구와 운영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여 일종의 관료제도로 변질하였다는 것이다. ALA 내에 각종 위원회가 1968년 현재 379개에 달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그 복잡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협회가 커지고 복잡하여짐에 따라 여러가지 폐단이 생긴다. 그 하나는 그 많은 위원회가 하는 사업의 비용이 엄청나게 커지므로 경비를 엄축하기 위하여 회원이 지불할 회비가 많아지는 것이다. 이보다 더욱 큰 폐단은 협회가 지닌 본래의 목적인 대정부, 대사회 영향이 협회 기구와 비용에 비하여 비효율적으로 적은 점이다. ALA의 회장은 회장 노릇을 배우느라고 임기의 태반을 소비하고 나머지 임기에는 뒤따라 오는 새 계승자에게 사회봉을 넘겨 줄 준비에 바쁘다. 결과적으로는 누가 회장을 하든 간에 효과적인 일을 할 시간이 없는 것이다.

ALA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끼리는 그것이 직업단체 대정부 압력단체, 사업단체, 학술단체의 여러가지 구실을 다 하려는데 있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보면 ALA는 다른 부문의 전문단체에 비하여 후진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AAUP(미국대학교수협회)는 개인회비 최고 15불(현재 25불로 인상)로 충분히 운영되며 고등교육계 전반에 막중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다. ALA의 개인회비는 최저 15불로부터 최고 125불로 평균 50불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 예상)

미국의 도서관학이 발달하였다고 하지만 아직도 도서관학의 순수한 전문학술단체가 없고 ALA산하에 속하는 도서관 유형에 따른 직업적인 단체가 학술단체의 구실까지 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학구적으로 활동하려는 사람들은 ALA나 각주의 도서관협회의 사업활동을 통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즉 학구적인 활동과 협회 사업활동이 혼동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한국도서관학회 같은 것이 생기면 이면에 있어 한국이 미국보다 앞선다고 필자는 본다.

필자는 고국에 오랫동안 돌아가서 한 가지 말을 꼭 하고 온다고 생각해 왔던 것이다. 타국에 나와 사는 한국 사람으로서 가장 반갑고 어깨가 펴지는 순간은 고국의 정세가 안정되고 경제발전이 고속도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기사를 읽을 때이다. 필자가 가장 관심 깊게 읽는 것은 이곳 미국의 도서관 잡지나 책에 실리는 한국도서관에 관한 이야기이다. 임대섭씨의 마을문고의 보급이라든가 경남의 학교도서관의 비약적인 발전같은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흐뭇해졌던 것이다.

필자가 존경하고 경애하는 사람들은 한국 실정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이것을 독창적이고, 자주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미국의 도서관은 미국의 실정과 수요를 위하여 발전된 것이니 미국을 위하여는 잘된 도서관이라 할지라도 이를 한국에 직수입하여 한국 실정과 수요에 적응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한국에서는 한국의 여건과 실정에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한국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고, 한국을 위하여 도서관을 발전시키고, 연구하여야 한다고 본다. 한국도서관의 발전은 한국도서관 사람만이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한국적이라고 하여 모든 것이 미국 것과 달라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이론, 방법을 사용하되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한국의 주체성을 내세우고 이를 기르고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라고 하여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니며 미국 도서관에서 배울 것도 많지만 배워서는 안될 것도 많다. 미국은 엄청나게 큰 나라다. 그들이 가진 문제와 고민거리도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복잡다단하다. 이의 원인과 미국 도서관계가 지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소개함으로써 한국 도서관 발전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미국의 도서관 하면 한 나라의 도서관 같이 인식이 되나 실상은 50개나 되는 나라(주)의 도서관을 말한다. 50개의 주마다 도서관을 다스리는 법률이 다르다. 연방정부는 그의 관할하에 몇개의 국립도서관(의회도서관, 국립의학도서관, 국립농업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전연 관리권이 없다. 각 주에 있어서도 주마다 있는 주립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도서관의 거의 전부가 각 도시, 군, 대학, 교구에 의하여 설치, 관할, 운영되므로 주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전역에 대소의 자치도시 행정구역이 약 십만이 된다고 한다. 이 중에 도서관을 가질만한 크기의 도시를 1/10로 잡으면 공공도서관 수가 만개가 된다. 개개의 공공도서관이 보통 독립된 도서관 이사들에 의하여 관리되므로 그들의 행정체열이 극히 복잡하고 다기하다. 이와같이 미국의 사정은 한국 사정과 다르다. 그들이 발전시킨 도서관도 미국 사정에 맞도록 운영되는 것이니 이를 그대로 한국에 이식하는 것이 한국의 생리나 사정에 맞을 수가 없다.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나 전문사서직의 규정과 현재의 인원사정이라 하겠다.

미국도서관의 역사적인 고민거리는 전 A.L.A.의 회장이었던 메리·케이버 여사 자신이 인정하듯이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여 남자들이 도서관직에 들어오기를 꺼린다는 사실이다. 여자들이 우세한 직업은 보통 사회적 위치나 소득에 있어 남자들의 직업보다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간호원직 같은 것이나 미국의 국민학교 교사직이 좋은 예다. 미국의 도서관인의 약 7할이 여자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수천의 작은 도시의 공공도서관 및 수천의 학교도서관에서 일반 사무직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 별로 다름이 없다. 이들의 대부분은 대학원의 전문직 사서 과정을 몇 배는 사람들로서, 학교도서관의 경우는 대학 졸업자로 교사자격과 사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다. 대학원 과정을 밟은 학교 사서는 대개 큰 학교 도서관의 책임자나 교육구의 도서관행정 책임자로 일하게 된다.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대학과정도 못 마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이삼십년 전에 대학을 졸업한 이래 재교육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하는 일은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족히 할 수 있는 일반 사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일이 일반사회에서 전문직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미국의 공공도서관의 7할 가량이 인구 일만명 미만의 소도시 도서관으로 되어 있다. 이들의 사업의 규모를 소개하면, 일년의 예산은 인구 1인당 3~4불 정도로 총예산이 수천불에서 2~3만불 정도로, 이중의 50~60퍼센트는 인건비로 지불하고, 17~18퍼센트 정도의 도서관구입비를 할당하면 나머지는 건물 유지비와 일반 행정비로 충당된다. 도서관 이용자로 등록된 사람은 대략 성인 인구의 25퍼센트 정도로, 이 중에서 실제로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인구의 10퍼센트 내외에 불과하다. 등록된 도서관 이용자가 대출하는 책수는 인디애나주의 평균에 의하면 매년 일인당 17~18책 정도이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도서관은 작은 살림살이이다. 이를 책방에 비유하면 1~2만권의 책을 갖고 책방을 경영하는 것과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학교도서관의 살림살이도 공공도서관의 경우와 별차가 없다. 학교나 공공도서관의 직원이 하는 일의 공통점을 말하면 그들의 일의 대부분이 책이란 물건을 다루는 일반사무직 일이며 전문사서로서 해야 할 지식과 교육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들은 일반사무원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인포메이션과 지식과 교육을 다루는 전문사서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미국의 많은 작은 도서관의 실정이다.

큰 대학도서관이나 큰 공공도서관에서는 남자 사서들을 비교적 많이 볼 수 있으나 여기서도 역시 여자가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자들은 보통 행정 책임자로 일을 하게 된다. 이러한 큰 규모의 도서관에서는 일의 전문화가 가능하며 사서 본연의 지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도서관인들이 하는 일이 일반 사무직이나 일반 행정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일 큰 이유는 도서관

의 학문적인 기반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도서관학이 학문이 되려면 이를 학문으로서 다루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초 연구에 투자가 없으므로 내일의 발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미국 큰 대학으로서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곳이 열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로 적고 이들 대학 전부가 배출하는 도서관학 박사는 매년 평균 십여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이 전부 도서관학교에 교직자로 취직한다 하여도 45개가 넘는 학교에서 자연 대체해야 할 인원도 채우기 어려운 처지다.

어떠한 학문이고 여러가지 분야로 세분되는데 도서관학도 학문이 되려면 자연적으로 전문분야로 세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적 이론의 체계화가 안된 도서관학의 세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학문의 과정은 분석적이고 체계가 서고 이론이 발전되고 가설이 설정되어 이것이 시험되어 가는 것이다. 도서관 사람들의 일이 대부분 일반 행정이나 일반 사무와 별다른 것이 없다면 거기에 학문이 있을 수 없고 또한 다른 전문직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도서관의 직업이 전문직이라면 일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야 한다. 즉 도서관 전문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야 한다. 그러나 석사과정을 밟은 전문사서들이 하는 일을 분석하면 80~90%의 일이 일반 사무직에 속하는 반복적이고 사무적인 일로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책임있는 판단을 요하는 일은 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태 발전을 유치한 것은 특히 도서관 행정가들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한국에서의 마찬가지로 미국의 도서관 직업은 어떤 종류의 도서관을 막론하고 단일 총계로 된 직업이다. 도서관에서 승진하고 출세하려면 행정책임자르 올라가는 길밖에 없다. 소위 전문직 사서라면 도서관의 과장계장의 행정책임자라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의술로 비유하면 환자를 돌보고 병 고치는 것은 간호원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의사들은 병원 행정하는 데 전념한다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된다.

이상의 미국 도서관계의 문제와 고민거리를 말한 것은 미국이라고 해서 전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미국이 기계문명의 본고장으로 기계는 잘 만드나 사회나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그들로서의 문제가 많다. 미국의 흥을 본 것은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과오를 한국 도서관에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서관 요원 양성, 조직 및 수용면에 있어 한국이 미국에 앞설 수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도서관학 이념이나 조직면에서 어떻게 미국에 앞설 수 있는가는 다음 기회에 다시 쓰기로 하고 여기서 끝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이 물질과 인적 자원의 면에서 후진국에 속하지만 소위 선진국의 발전 과정을 잘 연구하면 한국이 그들을 앞지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즉 양으로 못 따라가면 질과 조직으로 앞서 보자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음 기회에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